



‘무장애 문화예술’ 잠깐의 무대 넘어 일상으로 이어져야



국내의 사례로 확인한 지원 방향
행사 넘어 상시 운영체계 구축

장애예술 창작·자립 기반 취약
교육·창작 있는 지원체계 미흡

전용 거점 확충·접근성 개선 과제
작품 유통·판매 연계 기반 마련도



광주형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성과공유형 통합 축제 ‘예술날개 페스티벌’ 공연 모습.



일본 나라현의 민들레의집과 아트센터HANA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장애예술인들.

문화예술계에서 무장애를 내세운 전시와 공연, 영화 상영 등이 잇따르고 있다. 장애인 문화향유 권과 장애예술인의 창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원사업도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상당수는 특정 기간에 열리는 행사에 집중돼 있다. 행사가 끝난 뒤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문화를 누리고, 장애예술인이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부족하다.

‘무장애 문화예술 행사는 늘어나는데, 상시적으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할까’. ‘문화예술계에 부는 무장애 바람-누구나 즐길 권리, 아직 멀었다’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국내 서울과 해외 일본의 주요 문화예술 거점을 찾아 배리어프리가 일회성 행사를 넘어 상설 인프라와 운영체제로 자리 잡은 사례를 살펴보고, 전남광주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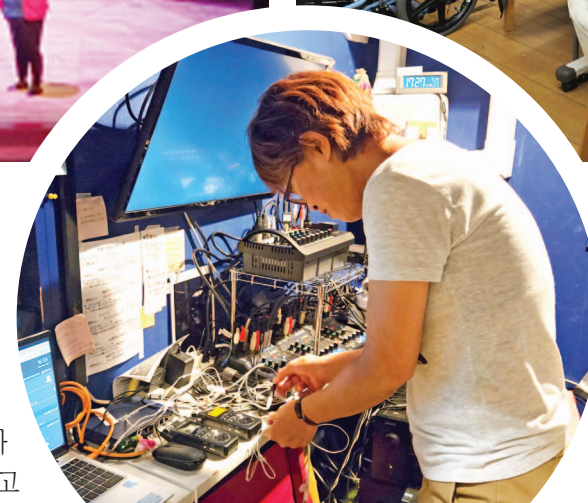
국내외의 문화예술 현장을 살펴본 결과, 무장애 문화예술의 핵심은 일회성 프로그램을 넘어 누구나 일상에서 예술을 누리고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었다. 이들이 접근 가능한 시설을 마련하

는 데 그치지 않고 누구나 일상에서 예술을 누리고 창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영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도쿄의 배리어프리 영화관 시네마 추프키 타바타는 접근성을 특별한 서비스가 아닌 영화관의 일상적인 운영 원칙으로 삼고 있다. 도쿄예술극장과 팀랩 등 문화시설에서도 다양한 관객의 접근성을 고려한 운영 방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장애예술인의 창작과 경제활동을 연결한 일본 나라현의 민들레의집과 아트센터HANA, 굿잡센터, 에이블아트컴퍼니 역시 시사하는 바가 컸다. 복지과 교육, 창작, 상품화와 유통이 이어지는 구조는 장애예술이 보호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독립적인 예술활동과 일자리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국내에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모두예술극장과 모두미술공간 등 장애예술에 특화된 기반시설이 마련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환경이 지역 곳곳으로 확산되기까지는 갈 길이



일본 도쿄의 배리어프리 영화관 시네마 추프키 타바타에서 히라즈카 치호고 대표가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을 준비하고 있다.

멀다. 특히 전남광주는 지속적인 창작과 교육, 작품 발표를 뒷받침할 상설거점이 부족한 실정이다. 해마다 전시와 공연, 지원사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행사가 끝난 뒤에도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

공간 조성에서 출발하되, 시설 확충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접근 가능한 창작실과 교육공간,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작품의 기록과 유통, 판매까지 연결하는 운영체계가 필요하다. 장애예술인을 정책 수혜자가 아닌 창작과 운영의 주체로 인정하는 인식 전환이 뒤따라야 한다.



인터뷰 전자광 (사)광주장애예술인협회 회장

“지역 장애예술 이제 시작…상설거점 절실”

“장애예술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창작물을 선보일 기회만이 아닙니다. 언제든 찾아와 배우고, 창작하며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죠. 저는 그 공간을 ‘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전자광 (사) 광주장애예술인협회 회장은 지역 장애예술계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상설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꼽았다. 장애예술인이 일회성 전시나 지원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일상에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시각에서다.

그는 “행사장은 잠깐 머물다 떠나는 곳이지만 집은 매일 돌아오는 곳”이라며 “장애예술인이 자유롭게 작업하고 시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문화예술을 함께 향유할 수 있어야 진정한 무장애 문화예술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최근 장애 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아

직 시작 단계라고 평가했다. 배리어프리 공연과 전시가 늘고 장애예술인의 작품 발표 기회가 넓어지고 있으나, 지속적인 교육과 창작, 경제활동으로 이어지는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의 오랜 시간엔 걸쳐 달라진 사례를 들며 문화예술 접근권 역시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장애예술계의 변화는 실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광주장애예술인협회가 마련한 ‘인권과 예술전’은 올해 다섯 번째를 맞았고, 지난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에이블아트워크’에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장애예술인 220명이 참여해 800점이 넘는 작품을 선보였다.

장애예술 작품을 전시장에서 미술시장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는 의미 있는 변화다. 중앙에 집중됐던 장애 예술아트페어를 광주에 유치

하면서 작품을 거래하고 소장하는 문화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전 회장은 “작품을 전시하는 것과 미술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거래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장애예술인의 작품이 정당한 평가와 가격을 받고 판매되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언급했다. 실제 지역 장애예술인의 경제적 여건은 열악하다.

전 회장에 따르면 과거 조사에서 상당수 작가의 연간 예술활동 수입이 100만원 안팎에 머물렀다. 창작을 이어온 장애예술인 이더라도 전시 참여에 따른 수입이나 소규모 작품 판매 외에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장애인의 창작 결과물이나 좋은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구매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작품은 장애 여부가 아니라 예술적 완성도와 가치로 평가받아야 한다. 장애예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닌 정당한 보상”이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비평과 작품 기록, 저작권 관리, 기업 협업 등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가치를 시장과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각예술의 경우 작품 이미지를 활용한 상품 개발과 라이선스 계약, 공공기관 작품 대여 등도 장

장애예술인 교육·창작·교류 위한 전용공간 제안
전남광주통합특설시 출범 계기 종합지원 등 강조

술기관, 장애예술인 단체가 역할을 나누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추진되는 장애예술인 고용 사례를 지역에 적용하고, 기업의 사회공헌과 공공기관의 작품 구매·대여사업을 연계한다면 창작활동과 소득의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역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전 회장은 “전남광주통합특설시 출범은 그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이뤄져 온 장애예술 지원체계를 하나로 연결할 기회”라며 “광주를 중심으로 전남지역 장애예술인까지 아우르는 광역 단위의 거점을 마련해 창작과 교육, 작품 발표와 유통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보다 문화예술 기반이 부족한 전남지역에는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못한 장애예술인이 더 많을 수 있다”며 “통합을 계기로 지역 간 문화격차를 줄이고 장애예술의 가능성을 함께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